

## 박주영·구자철·이청용 '삼각편대' 뜬다



### 월드컵 '조광래호' 오늘 세르비아와 평가전 수비형 미드필더에 기성용... 새 포백 점검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동유럽의 '난적' 세르비아와 맞대결을 벌인 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세르비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9월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3개월여 앞둔 조광래호가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대표팀은 7일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오후 8시·전주월드컵경기장)와의 평가전에 이어 8월10일 일본과의 친선경기를 끝으로 곧바로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 나선다. 세르비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6위로 한국(31위)보다 15계단이 높고 역대 월드컵에서도 두 차례나 4강에 진출했던 동유럽의 '전통 강호'다. 한국은 세르비아와 2009년 11월18일 친선경기에

서 한 차례 맞붙어 0-1로 졌다. 이번 세르비아 대표팀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팀 동료인 '철벽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와 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첼시)와 밀란 요바노비치(리버풀), 니콜라 지지치(버밍엄 시티) 등 핵심 선수들이 빠진 1.5진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장인 데얀 스타니코비치(인터 밀란)와 '세르비아 카카' 조란 토시치(CSKA 모스크바)를 비롯해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캡틴' 박주영(프랑스 AS모나코)이 4-1-4-1 전형의 꼭지점인 최전방 공격수 임무를 맡고, 좌우 날개에는 이근호(갑파 오사카)와 이청용(잉글랜드 볼턴)이 선발 출전할 전망이다.



2일 오후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선수들이 미니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강철·조계현·이광우 특급 투수 입단에 '들쭉'

80년대의 중작점인 1989년 광주의 봄은 걸출한 세 명의 국가대표 출신 투수들의 입단으로 들쭉였다. 고교때부터 초고교급 투수로 각광을 받았던 광주일고-동국대 출신의 이강철, 군산상고-연세대 출신의 조계현 그리고 군산상고-원광대 출신의 이광우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훗날 '한국형 잠수함' 이강철은 언더핸드투수의 대명사로, '싸움닭' 조계현은 경기운영능력의 일인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했던 이광우는 '여린 마음'이 프로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해 명성만점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광우는 해태에서 세 시즌동안 8승12패3세이브의 성적을 남기고 OB로 이적하고 말았다. 입단과정에서 해태 프런트는 이광우와 동기동창인 정명원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는데, 결국은 '미완의 대기' 정명원 대신 '현재의 에이스' 이광우를 선택했던 것이다. 190cm의 장신에서 내려쭙는 직구의 위력이 대단했던 정명원은 해태와의 연습경기에서 노히트노런을 기록할 정도의 좋은 투구내용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연고 우선에서 세 명밖에 지명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정명원을 태평양 돌핀스에 빼앗기고 말았다.

조광래 감독은 애초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을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먼저 내보내려고 했으나 구자철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출전 시간이 적어 경기 리듬과 컨디션을 찾지 못하자 이근호 선발 카드를 선택했다. 구자철은 교체 선수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호는 지난 3월 온두라스와의 평가전 때 대표팀에 복귀해 2년여 만에 골 맛을 보며 조광래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역삼각형 형태의 중원에는 이용래(수원)-김정우(상주)가 중앙 미드필더 '듀오'로 나서고 공격의 시발점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기성용(셀틱)이 선다. 조 감독이 두 차례 평가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포백(4-back) 수비라인에는 김명권(오미아)-이정수(알 사드)-홍정호(제주)-차두리(셀틱)가 들어선다. 베스트 11중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는 박주영과 구자철, 이청용, 기성용, 차두리 등 5명이다. 이영표(알 힐랄)가 대표팀은 은퇴하면서 공백이 생긴 왼쪽 풀백 자리에는 중앙수비수로 활약했던 김명권이 채우고 부상에서 회복한 '탱크' 차두리는 오른쪽 풀백으로 복귀 신고를 한다. 골키퍼 장갑은 정성룡(수원)이 건다. /연합뉴스

### "맨유, 박지성과 재계약 원한다"

#### 2년 연장에 몸값도 치솟을 전망

##### 영국 언론 보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박지성(30)과의 재계약을 원한다는 보도가 영국언론을 통해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2일(한국시간) '맨유는 박지성과의 계약 연장을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지성은 2011~2012시즌 개막 직전에 맨유와 재계약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박지성은 이번 시즌 맨유의 핵심 선수로 떠올랐다"며 "2010~2011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맡은 역할이 잘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아시아잔업을 끝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은퇴한 박지성은 정규리그 28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5월 8일 첼시전에서는 결승골을 넣어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히는 활약을 펼쳤다"며 "박지성은 2년 연장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계약된 박지성은 2009년 당시 몸값인 연봉 360만 파운드(64억원)를 훨씬 웃도는 거액에 재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1일 귀국한 박지성은 오는 15일 박지성 재단이 주최하는 베트남 자선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에이전트가 대신 맨유와의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맨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며 "축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맨유에서 뛰었고 맨유를 좋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지동원 영국 가도 성공할 것"

#### 조광래 감독

##### "한국축구 발전 위해 좋은 선수 보내줘야"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해외진출을 저울질하는 지동원(전남)에 대해 "기술과 재능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2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동원의 해외진출이 화제거리가 됐다"며 "진출 여부는 소속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가능성 있는 선수는 해외에서 뛰는 게 낫다"고 밝혔다. 지동원은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입단을 추진하고 있다. 조 감독은 "좋은 팀에 가서 많은 경기를 뛰어야



제2의 박지성 같은 선수도 나올 수 있다"며 "결정은 구단의 몫이지만 어느 선수가 해외 진출할 기회가 있다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초 아시아잔업을 치르면서 느낀 점은 지동원의 기술과 지능은 충분히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충력을 더 기르면 위협적인 공격수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조 감독은 특히 "유럽 선수를 못지않은 지능적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라며 "성공의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박주영(AS모나코)도 "좋은 선수들은 유럽에 진출해 뛰는 게 좋다고 본다"며 "구단과 주변의 사람들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광주도시공사 출전

201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2차대회가 3일부터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4월13일 막을 올린 핸드볼 코리아리그는 두산 등 남부 5개 팀, 광주도시공사 등 여자 7개 팀이 출전해 남자는 3라운드, 여자는 2라운드로 정규리그를 치른 뒤 상위 3개 팀을 추려 7월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을 벌인다. 여자부는 인천시체육회와 용인시청이 승점 11점과 10점으로 1,2위를 달리는 가운데 삼척시청(6점), 부산시청(6점), 서울시청(4점), 대구시청(3점), 광주도시공사(2점)의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뜨거워 전망이다. /연합뉴스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기기!

₩27,500 (세금포함)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8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